

2017년 5월 20일, 구좌읍 동복리 동복리경로당, 이현정 조사.

양고출(여, 1930년생, 구좌읍 동복리)

- 줄거리: 조천 만세동산에 귀신이 나온다는 이야기이다. 한 사람이 종달리를 갔다가 만세동산을 거쳐 오는데, 졸음이 쏟아져 잠시 앓아 눈을 부치려고 하였는데 귀신이 다가와 쳐다보았다. 큰 소리로 귀신에게 욕을 하자 곧 달아나버렸는데, 귀신에게 씌었던 탓인지 그 집안이 모두 망하고 자식들도 흉한 일을 당하였다.

[제보자] 조천 만세동산 잇지 아녀우파예? 만세동산 잇인디. 그 김○○이엔 헌 하르방이 우리 아부지영 친구주게. 경 헌디 옛날은 걸엉 왓다 걸엉 갓단디. 종달이가 논이 많이 잇어. 논이 많이 잇이난. 그 논에 강 빙 오단 보난 그냥 날이 어둑웠어. 어둑으난 그 만세동산에서 훈 백 메다만 가민 이녁 집인디. 그 만세동산에 오난 양 막 줄아완양.

“에, 이 디서 흐끔 좀 부옇 가젠.”

헌 영 앗인디양, 구신이 완야 영 바래여 가난양.

“너 이노무 자석 (불청).”

해부난양, 씽 허게 돌아난게양.

기냥 그 재산 몬딱 풀아 먹고 얘기덜 서너 개 저, 거스기 중국 간 뜰도 기냥 칼 맞았고 죽고 일본 간 아덜도 칼 맞았고 죽고. 족은아덜은 나영 동갑인디 Ӧ디 막 정신 돌아짱 걸려불언. 저 굿을 멧 번 해도 안 뛰여.

[조사자] 근데 도체비가 경 헌덴 허여예?

[제보자] 어.

- 핵심어 : 만세동산, 종달리, 논, 도체비, 구신, 굿, 귀신, 조천리